

주요기업 “경제회복 2018년 하반기”

〈33.3%〉

현대경제연구 설문조사 결과 하반기 회복추진·침체가능 추경·재정보강 영향 미미 “올해 경제성장률 2%대”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8년 하반기는 돼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재정 보강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2016년 하반기 투자 환경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매출액 기준 국내 12개 업종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일부 항목 복수 응답 가능)을 실시했고, 61개 기업으로부터 응답 자료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데에는 적어도 1~2년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33.3%는 2018년 하반기, 28.3%는 같은해 상반기를 꼽았다. 2년 뒤 회복을 예측한 기업이 전체의 61.6%에 달했다.

2017년 하반기와 상반기가 될 것이란 전망은 각각 31.7%, 6.7% 나왔다. 올해 하반기 경제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하반기 국내 경제의 회복세



철도민영화 반대 철도노조 조합원 및 KTX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정부 ‘또 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 저지 범대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라는 계획은 대국민 약속 위반이자, 재벌특혜라고 주장했다.

가 일시적으로 주춤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59.3%를 차지했고, 침체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40%나 기록했다.

반면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은 6.7%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반기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정부의 추경 및 재정보강이 하반기 국내 소비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로 응답한 기업은 56.7%, ‘매우 작다’에 응답한 기업은 3.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대부분 2%대에 머물렀다.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 일거라고 응답한 기업은 42.6%, ‘2%대 중반’은 37.7%, ‘2%대 후반’은 14.8%로 나타났다.

이밖에 주요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에 가장 부담을 줄 위험 요인으로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33.3%)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25.4%)를 지적했다.

경연변수 중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33.0%), 철강·조선 등 공공과잉업종 재편(33.0%), 중국정부의 자국산업 보호 및 비관세장벽(15.0%) 등을 꼽았다. 하반기에 꼭 필요한 경제정책에는

법안세 조정 등 기업친화적 세계개편(16.9%), 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15.3%), 구조조정 마무리(13.6%), 신산업정책 수립(13.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회정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컨설팅실 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은 2018년 하반기에 가서야 본격적인 경기 회복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의 주된 방향은 ‘규제완화·진행상황 점검 및 지속 추진’, 법인세 조정 등 기업친화적 세계개편 등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여름철 차량 관리 노하우

타이어 마모 점검·고속도로에선 공기압 10~15% ↑ 직사광선 주·정차 자제하고 엔진과열 체크해야

차량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여름 장마철이다.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휴가철은 다가오는데 평소 차량 관리가 돼 있지 않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여름철 차량 관리 노하우를 알아본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여름엔 타이어 관리 미흡과 에어컨 세균 번식, 가스 및 접착제기 폭발, 주행 중 엔진 과열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세심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장마철 타이어 마모가 심할 경우 빗길에 제동력이 더욱 떨어지고 고무 경화 및 갈라짐은 폭염 속에서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마모한께 1.6mm 이하이거나 갈라진 타이어는 교체하고 여름철이나 고속도로 주행 시엔 공기압을 10~15% 더 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시간 주행마다 10분씩 휴식해 열을 식혀 주는 것도 좋다.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선 도착 2~3분 전부터 에어컨을 꺼 차량 내 수분을 증발시켜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에어컨 필터는 1년에 1~2번 교체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여름엔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차량 내부 온도가 최고 90도 이상 상승한다. 차량 내부에 가스라이터, 핸드폰 배터리를 뒀다면 폭발 또는 손상 위험이 있다. 이를 막으려면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활용해 내부 온도를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물건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수다.

화재 위험도 상존한다. 국민안전처 화재발생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 중 자동차 화재 비율은 11.3%로 하루 평균 14건에 이른다. 폭염 속에서 장시간 주차한 뒤 엔진을 가동했을 때 나타나는 엔진과열이 주요 원인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 냉각수 온도를 체크해 수시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을 위해 동차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좋다. /인진수 기자

“부모 자산·부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금감원,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 안내…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도 제공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 등을 알고 싶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비롯해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서비스’ 5가지를 7일 안내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공제계약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대부분 법 개정에 따라 대부분 법의 빛도 조

회할 수 있게 됐다.

희망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사망 신고 후 금감원 본·지원 및 시중은행 등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사이엔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결과 조회는 금감원 및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3개월간 가능하다.

서민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전문가가 부채관리

와 노후설계 등을 알려주는 무료 금융자문 서비스도 있다.

대면, 전화 및 온라인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내 상담부스를 방문하거나 전화(1332-7), 금소처 홈페이지(www.consumer.fss.or.kr)의 민원상담조회 서비스-금융자문서비스, 모바일(fss1332.mdo.at)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자문 서비스’를 검색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인지 알고 싶

다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버 금융회사를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 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코너에서 금융회사 이름을 입력하거나 업종 선택 후 검색하면 적합한 회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절차도 해당 사이트에서 바로 가능하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재무정보 등을 추출해 통계 형식으로 알리는 ‘금융통계정보 제공 서비스’와 상장사 등의 사업보고서를 정리한 ‘기업공시정보 제공 서비스’(DART)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인진수 기자

국민 33% “정부 경제정책 C학점”

24.4%는 F학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반적인 경제정책 평가에 C 학점을 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7일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국민의식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전화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p다.

조사에 따르면 C학점으로 평가한 사람은 전체의 32.7%로 F학점을 준 응답자(24.4%)보다 8.3%p 높게 나타났다. B학점 준 응답자는 17.9%였다.

경제평가(A, B)는 2014년 6월 37.0%에서 지난해 7월 24.5%로 줄었고 올해는 22.3%까지 낮아졌다. 반면 부정평가(D+F)는 같은기간 각각 ▲27.7% ▲41.2% ▲42.7%로 높아졌다.

연구소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정부의 경제운영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금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완화되고 있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이 75.2%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14.5%)보다 60.7%p 높게 나타났다.

1분기 조사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12.5%p 낮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은 9.0%p 높아졌다.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9.8%로 1분기 보다 5.2%p 낮아진 79.8%로 나타났으며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0.3%로 역시 앞선 분기보다 2.9%p 높아졌다.

경제정책 결과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집단으로는 재벌대기업이 47.4%,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20.1%로 뽑혔다.

연구소 관계자는 “국민 다수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재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